

한국교회 청년과 '12.3 계엄' 집담회

두 광장에 선

2025. 3. 7. (금) 19:00~21:00

동네책방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1층 (신설동역)

배덕만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유희정 / IVF 남서울지방회 간사

그리고 청년들

한국교회 청년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02-794-6200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교회 청년과 12.3 계엄 집담회
“두 광장에 선 한국교회 청년”

Ⅰ 발간일 2025년 3월 7일

Ⅰ 편 집 이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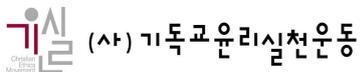
Ⅰ 디자인 김현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서 및 목차

Ⅰ 사회 - 이명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간사)

Ⅰ 발제

발제1. 50대 목사가 바라 본 12.3 비상계엄 4p
-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발제2. 12.3 계엄 이후 청년사역 8p
- 유희정 (남서울 IVF 간사)

Ⅰ 사전 질문 11p

[발제1.]

50대 목사가 바라 본 12.3 비상계엄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1.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저의 심정

현재 한국 사회는 21세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상황을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통령탄핵이 노무현, 박근혜 시절에도 발생했지만, 탄핵의 이유와 후폭풍 면에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과 고통스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과 감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먼저,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거짓말과 궤변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에 그야말로 경악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둘째,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반란수괴 탄핵을 결의하며, 권한대행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관련 사실들이 이후 진행된 재판과 수사, 청문회에서 차례로 드러나면서, 여당과 집권 세력이 보여주는 비겁함과 무책임, 사악함과 광기에 분노와 공포마저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이 나라 권력의 정상에서 무슨 짓들을 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난 10.27 집회부터 현재 세이브 코리아 집회까지 극우 개신교인들이 보여준 행태에 분노, 수치,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주, 자유와 법치를 외치면서 헌법과 질서, 민주와 정의를 온몸으로 거부하고 파괴하는 모습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지극한 분노를 느낍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비논리적 궤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로 도배된 집회를 바라보며, '인간으로서' 수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십자가를 들먹이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은 좌절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 위기 상황 앞에서 저의 생각, 심지어 상상을 뛰어넘는 '감격과 경이로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김건희, 국민의 힘과 검찰이 지난 3년간 행한 악행과 비행, 무능과 기만 앞에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앞으로도 이런 현실을 2년 이상 더 견뎌야 한다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해법이나 돌파구,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 혹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윤 정권과 그 무리들을 일거에 제거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개입과 주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나라 국민, 특히 깨어 있는 민주시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안도하며 행복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보여준 신속하고 담대하고 일치된 모습, 급박한 순간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 군인들과 대치하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고 응원했던 시민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반헌법적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길 거부했던 군인들,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 여의도, 남태령, 용산에서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을 무릅쓰고 용감하고 신명나게 투쟁한, 세대를 초월한 이 나라 국민들 때문에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고 고맙고 든든해서 말입니다.

셋째, 비록 대다수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침묵하거나 궤변을 늘어놓거나, 혹은 엄청난 수의 극우 기독교인들이 거리와 교회에선 광란의 굶판을 벌이고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의 개신교인들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땅의 민주시민으로 존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에 안도와 위로, 용기와 희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모두가 우상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님을 확인했기에 정말 다행입니다.

2.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극우주의자들이 존재하며, 왜 저들은 이렇게 비상식적, 비논리적, 비도덕적, 비민주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분단이 한국교회 극우화의 근원적 원인임에 틀림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숭미주의에 극단적으로 경도된 일차적인 이유는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월남한 교인들에 의해 남한의 교회가 재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향, 재산, 가족, 교회를 상실했고, 남한에서 이주민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던 이들이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근원적 분노와 공포를 집단적 무의식이자 삶의 양식으로 내재화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에게 삶의 공간과 경제적 재기의 기회, 신앙의 자유를 제공한 남한 정부와 미국, 그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반공과 자유민주

주의는 이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조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현실의 출발점이자 일차적인 원인은 분단과 냉전이었습니다.

둘째, 한국교회의 정교유착의 역사도 이런 병리현상의 주된 원인입니다. 1948년 남한과 북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남한에서 개신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파시즘 체제에서 독재정권과 가장 긴밀히 유착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몰락한 이승만 정권, "10.26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해체된 박정희 정권, "6.10항쟁"으로 물러난 전두환 정권 모두 한국현대사의 수적이지만, 한국교회는 이런 불법 정권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며 각종 특혜 속에 초고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종식되었지만, 파시즘 정권과 유착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그 정권의 후예들과 여전히 운명공동체로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요소입니다.

셋째, 한국교회를 지배하는 근본주의 신앙이 끼친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근본주의적 신앙과 신학을 수용했으며, 일제와 한국전쟁, 군부독재를 통과하면서 견고하고 뿌리 깊게 내재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주의는 성서무오설과 축자영감설, 문자적 해석,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부흥운동을 토대로 삼고, 반진화론, 반공주의, 반낙태, 반동성애 등을 성경적 진리로 규정하고, 선민의식과 분리주의, 전투적 적대감과 공포심을 도구로 사유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근본주의는 한국에서 우익정부와 배타적 일치, 승미와 반북, 진보적 좌파와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맹목적 반공주의와 극우주의, 민주화와 통일 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본능적 반감 등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교회가 처한 존재론적 위기감이 초래한 종말적 광기도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가 한국교회의 극우화를 주도하고,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이 수동적으로 동조하거나 묵인하며, 수많은 교인들이 동조·동원되는 현상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소멸의 공포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교회는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빠르게 신자들이 이탈하고 전도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교세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런 교세 약화는 한국사회에 세속화가 급속도로 확장되기 때문이고, 대형교회와 기독교인 공직자들의 비리와 스캔들이 언론을 도배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에 대한 교회 안팎의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문제의 당사자들은 정직한 반성과 회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는 대신, 문제의 원인을 내부 비판자, 종북좌파, 이단, 동성애자에게 돌리면서 자신들의 과오와 책임을 회피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대신, 위기감과 비판의 소리가 고조될 수록, 배제와 혐오에 근거한 보수교회의 궤변과 폭력, 정치적 극우화는 더욱 강화·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3.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역사도 깊고, 관련된 사람들은 많으며, 조직 간의 네트워크도 강력합니다. 얽힌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따라서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런 신비한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중심 세력이 드러났기에, 그리고 그것들과 씨름하며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므로, 긴 호흡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대척점에 놓인 사람들, 심지어 문제 있는 모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그런 현실에 압도되어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도 안됩니다. 대신, 우리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거나 길을 잃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둘째, 이 상황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한국사회와 교회를 향해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과 조직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상황에서, 그리고 거대한 적대세력 앞에서 홀로 견디며 미래를 도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개인들끼리,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모임과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장기적으로 교육과 친교, 예배의 기회를 마련하면서, 내적 유대를 강화하고 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해야 합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 끈질긴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이 사태에 대응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적·민주적 통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실천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믿고 소망합니다.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영성을 훈련하고 선교에 헌신합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동일한 믿음과 소망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적·민주적 통일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평화적·민주적 통일 없이,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의 국제관계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은 좀처럼 빨리 그리고 쉽게 도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의 꿈을 결코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일과 민주, 번영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기실**

12.3 계엄 이후 청년사역

유희정 (남서울 IVF 간사)

1. 12.3 계엄 이전의 청년사역

코로나 이후 2023년부터 대학 내 대면 활동, 축제, 소모임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VF를 비롯한 기독교 선교단체들도 대면 수련회, MT, 여러 모임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코로나를 겪으며 학창시절과 교회 안에서 공동체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 입학한 후 학과 활동이나 동아리를 통해 단체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신앙 공동체와 신앙을 함께 나누는 교제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컸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는 학생들 중에는 성인이 되어 대학 사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느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대학 입학 이전부터 신앙 공동체를 원했던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청소년 시절 관계의 공백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학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방법, 성경 인물과 주제 등에 대한 경험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VF는 기도와 말씀을 반복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성경 연구와 묵상 훈련을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성경 내용부터 시작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 사역 또한 재정비하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법, 성경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법,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신앙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공적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대학생활 4~5년 동안 그리고 이후 학사의 삶까지 지속될 수 있는 신앙과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삶에서 실천할 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MT와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하나님과 더욱 정직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후에는 점차 가치관, 정치적 성향,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대화도 이루어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10.27 집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연스럽게 이러한 대화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개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그 외의 활동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2. 12.3 계엄 이후의 청년사역

계엄 이후 IVF의 사역은 극우 성향의 교회 메시지에 대항하여 분별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시기 IVF 간사회에서는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규탄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계엄 상황의 위험성과 위헌을 신속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간사회는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학생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대자보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대부분의 IVF 학생들은 이번 계엄이 다시 독재 정권으로 회귀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IVF의 공식적인 시국 선언에 위로를 받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 온 세상과의 화해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을 통제하려는 지도자에 대한 시국 선언문 발표는 IVF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IVF의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리더십을 배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신앙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도 함께하는 것이기에, 대학 커뮤니티와 교회 청년부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국 선언문 발표 이후 공동체를 떠난 학생들도 있었고, IVF 같은 기독교 선교단체가 공식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비판도 받았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교회에서는 극우정당을 지지하는 설교가 허용되면서도, 기독교 단체가 진보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의 관점에서 볼 때,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단절할 수는 없었고, 간사들은 각자의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나눈 대화 통해 그들이 가지는 주요한 우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 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학생들과 나눈 대화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회를 탄압하고, 북한과 같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

남성 중심적 지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

평화주의적 신앙 해석: 탄핵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나라의 평화를 해친다는 주장

이러한 대화를 통해, 한국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것과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질문과 고민보다는 순응과 복종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3. 계엄 이후 청년사역에서의 시도

지난 2월 남서울 IVF에서는 광주로 역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폭력을 저질렀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20대 남성 커뮤니티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졌던 한 학생이 역사 여행을 통해 자신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는 함께한 학생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간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 여행과 학습 모임을 정기적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계엄 이후의 청년 사역은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활동들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 변혁적이고 진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더 커졌으며, 오히려 기독교 밖에서 더 많은 지지와 지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사전 질문]

1. 교회

- 동 행사를 설명하는 문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뚜렷한 관점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평소에는 지극히 정치와 결탁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번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해야 한다는 혹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야기를 하는 주류 한국 교회의 입장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현 정권에 부여하는 극우 성향의 교회, 교단과 달리 보수 성향의 교회, 교단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삶 가운데 어떤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지편향, 이분법적 세계관 및 선민사상 등 정치·종교적 극단성이 점차 일반화되어가는 내재심리와 성장배경
- 오늘날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광기와 증오와 혐오가 넘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그네들만의 높디높은 배타적인 성’이 아니라 ‘누구나 맘 편히 오가며 쉬어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광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 광장에 있는 극우 기독교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통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들과도 정치 이야기를 잘 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느껴서인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성향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저에겐 포용과 존중도 허용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가 있는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 귀신 들려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팩스 로마나 가운데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자기의 힘, 유익만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의미
- 정말로 기독교인은 좌파 혹은 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2. 성경

- 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든 근거를 성경 구절로 들고 있어서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하기 어렵요. 가끔은 어느 쪽이든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추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건강한 방법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부분을 붙들고 반대 의견을 따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계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 어쩔 수 없이 그들(탄핵을 반대하는 이들) 대부분이 하나님은 믿는다는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함
- 한국교회의 극우화화의 주요 원인은 문자주의적 성경해석이라 생각하며, 대표적으로는 창조과학과 반동성애라는 견해에 대하여
- 이번 사태를 거치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발제자 두 분이 생각하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개선점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 청년

- (여성에게 질문) 탄핵집회에 남성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에 대해, (젊은세대 남성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젊은 세대 남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더 나은 세상, 사회개혁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 기독교청년이라면, 계엄과 윤대통령을 옹호하는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옹호 이유가 무엇인지, 옹호해서 본인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4. 사회

-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 계엄을 계몽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계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탄핵의 반대한다면 대통령의 계엄이 옳다고 생각해서인지, 혹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게 싫어서인지 궁금합니다.
-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제시한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만약 부정선거로 확신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부정선거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옳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황증거 또한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지?
-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계엄 선포, 군인들의 무자비한 탄압,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무차별적 죽음이 일어났을지라도 대통령 탄핵 반대를 후회하지 않을까요?
-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을 때 본인, 나라, 기독교에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새로운 사회는 그저 윤석열 탄핵으로 시작되지 않고, 온갖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노력이 성실히 이뤄져야할텐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자극적인 뉴스에만 관심 갖고 나라의 가치와 철학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한창 계엄과 탄핵사이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금세 피로해지고 무엇이 팩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팔로우 하기가 어려운데, 일상에서 꾸준히 정치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부분을 다뤄나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이런 대화의 장에서 늘 서로를 향한 분노가 심지어 나 스스로에게도 일었음을 상기해보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도 되고 의구심마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참으로 연약함은 이런 성숙한 토론 문화가 없다는 점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셔서 변화의 기점이 되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